



## 제니스, 제네바에서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다**

2019년은 세계 최초의 고주파수 자동 크로노그래프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한 해였다. 제니스는 El Primero(엘 프리메로) 출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별이 이끄는 브랜드 제니스는 여러 리바이벌 시리즈들을 통해 상징적인 시계 El Primero(엘 프리메로)를 우리 곁으로 다시 불러들였으며, 전세계의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장소에서 언론, 고객, 브랜드 친구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즐기는 <그르니에 클럽> 월드 투어를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공학의 중심지 제네바에서 며칠간에 걸쳐 이목이 집중되는 다수의 이벤트로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전세계의 워치 컬렉터들이 다양한 경매와 시계 관련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에 모인 가운데, 제니스는 역사적인 El Primero(엘 프리메로) 모델의 두 가지 재해석 버전을 두 곳의 경매에 부쳤다. 두 경매 모두 수익은 자선사업에 기부된다.

라 레제르브에서 진행된 필립스의 <제네바 시계경매 X>에서, 플래티넘 케이스와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을 장착한 단 하나의 El Primero A386(엘 프리메로 A386) 모델이 치열한 입찰전 끝에 250,000스위스 프랑에 판매되었다. 이 모델은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A386의 럭셔리한 재해석 버전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기념 시계의 경매 수익은 국제소아암단체인 Childhood Cancer International 소속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Zoe4Life에 기부하게 된다.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제네바의 호텔 데 베르그에서는 크리스티가 2년마다 열리는 온리 워치 자선 경매 2019년 에디션을 열었다. 이 자선사업의 경우 제니스는 상징적인 3색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을 재해석하여 온리 워치 2019의 공식 컬러인 스카이 블루 터치를 가미해 디자인한 단일 발매 스페셜 다이얼을 장착한, 스틸 소재의 단일 모델 El Primero A386 Revival(엘 프리메로 A386 리바이벌)을 창조하였다. 이 단일제작 모델은 75,000스위스 프랑에 판매되었으며, 전액 모나코 협회에 기부된다.

### **그르니에 클럽 - 전 세계적인 경축 행사**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니스는 2019년 초부터 그르니에 클럽 월드 투어를 시작하였다. 그르니에 클럽 이벤트는 매달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나 현대 미술관이나 화랑 등 아름다운 장소에 50명의 현지 게스트들이 초청되었다. 샤를 베르모가 El Primero(엘 프리메로) 도면을 숨긴 다락(불어로 그르니에)을 기리는 의미에서 명명된 그르니에 클럽은 과거에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수많은 사랑을 받아온 엘 프리메로 칼리버의 끝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미래에 환호한다. 그 중 몇몇 이벤트에는 샤를 베르모의 아들 미셸 베르모가 참석하여, 아버지와 엘 프리메로를 만들던 이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영감이 가득 찬 순간을 공유하며 열정적인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모든 역경을 뚫고 혁신을 추구하던



이들의 일화에서 제니스의 오늘을 엿볼 수 있다. 제네바는 그르니에 클럽 월드 투어의 마지막 기착지였는데, 제니스의 탄생지인 이곳 스위스에서 국내외 게스트들은 최초의 고주파수 자동 크로노그래프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골든 주빌리를 축하하였다.

### 샤를 베르모 - 영웅을 기리다

El Primero(엘 프리메로) 기념행사라면, 이 놀라운 칼리버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 샤를 베르모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빠트릴 수 없다.

베르모는 50 년 전 El Primero(엘 프리메로)가 처음 출시되었던 초기에 무브먼트들을 만들던 오리지널 워치메이커로서,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정신적 아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1975 년 쿼츠의 등장으로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생산 중단이 결정되었다. 베르모는 언젠가는 제니스가 이 탁월한 무브먼트를 다시 생산하기를 바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El Primero(엘 프리메로)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베르모는 El Primero(엘 프리메로) 무브먼트의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도면과 툴을 몰래 모아서, 제니스 공방 다락의 벽 뒤에 가려진 비밀의 장소에 숨겼다. 언젠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타임캡슐처럼, 이 다락은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살아있는 기억이자 미래의 수호자가 되었다. 베르모의 용기있는 행동은 10 년 뒤 El Primero(엘 프리메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제니스 공방의 방문객들이 그대로 보존된 이 다락에 들어가 볼 수 있으며, <르 몽드 에뚜알레> 인터랙티브 투어를 통해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제니스는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 주년을 맞아 현실의 슈퍼히어로인 베르모의 용기있는 행동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오브제를 만들기로 하였다. 스위스의 만화가가 코제의 재능에 힘입어, 베르모가 지시를 어기고 El Primero(엘 프리메로)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일련의 빈티지 스타일 만화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만화의 오리지널 그림은 공방에 전시되며, 디지털 버전은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 일반적인 조절기관을 구성하는 30 개 이상의 부품 대신 최고 수준의 기술적 공정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독보적인 초박형 실리콘 오실레이터를 장착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100 분의 1 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이 좋은 예이다. 1865 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36,000vph 의 고주파수로 박동하는 사상 최초로 양산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 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